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(2016. 01. 29)

작성자 : IBK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(☎02-729-6623)

<목 차>

Ⅰ. 국가별 동향

미 국 :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·생산 동반 부진으로 경기낙관론은 감소

유로존 : 실물경기지표(생산·소비 등)는 부진하지만 경기개선 기대감은 상승中

중 국 : 2015년 6.9%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'바오류(保六)'시대 돌입

일 본 : 소비 부진에 이어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마저 감소

한 국 : 수출 부진으로 생산과 투자 감소세가 지속

IBK경제연구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·생산 동반 부진으로 경기낙관론은 감소

○ 12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전월대비 29.2만명 증가하며 '15년 월평균(22만명)을 상회, 실업률도 5.0%로 '08.4월(5.0%) 이래 최저치 유지

○ 12월 소매판매는 따뜻한 날씨, 가솔린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만에 전월대비 0.1% 감소

○ 12월 산업생산은 달러화강세·저유가 등으로 인한 에너지 기업의 생산 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한 △0.4% 기록

분기지표	'14.Q3	Q4	'15.Q1	Q2	Q3
GDP(전기대비 연율, %)	4.3	2.1	0.6	3.9	1.5

월지표	'14.12월	'15.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소비자물가(전월대비, %)	△0.3	0.1	△0.1	△0.2	0.2	0.0	△0.1
산업생산(전월대비, %)	0.1	0.8	0.1	0.0	△0.2	△0.9	△0.4
소매판매(전월대비, %)	△0.7	0.8	0.0	△0.1	0.1	0.4	△0.1
실업률(%)	5.6	5.3	5.1	5.1	5.0	5.0	5.0
비농업부분 신규취업자(만명)	32.9	22.3	15.3	14.5	30.7	25.2	29.2

□ 유로존, 실물경기지표(생산·소비 등)는 부진하지만 경기개선 기대감은 상승中

○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자동차 연료 판매 등이 줄면서 전월대비 △0.3%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

○ 11월 산업생산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 수요 둔화와 따뜻한 날씨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 등으로 '14.8월(1.0%) 이후 최대 감소폭인 △0.7% 기록

○ 11월 실업률은 고용시장 여건 호조로 '11.10월(10.5%) 이래 최저인 10.5% 기록

○ 1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*는 유럽중앙은행(ECB)의 경기부양책** 효과로 인해 가계소비와 기업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'14.3월 이후 최고인 53.2pt 기록

* **53.4('14.3월)** → 52.2('14.4월) ⇒ 52.0('15.4월) ⇒ 52.3('15.10월) → 52.8('15.11월) → **53.2('15.12월)**

** 중앙은행 예금금리 인하(△0.2→△0.3), 국채매입 기간 연장('16.9월→'17.3월, 월 600억유로) 등

※ ECB의장(1.21)은 인플레이션을 2%로 올릴 수 있는 힘, 의지, 결단력이 있고,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에도 제한이 없음을 강조 (중앙은행 총자산/GDP : ECB 13.7%, Fed 24.5%, BOJ 70.1%)

분기지표	'14.Q3	Q4	'15.Q1	Q2	Q3
GDP(전기대비, %)	0.3	0.4	0.9	0.4	0.3

월지표	'14.11월	'15.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산업생산(전월대비, %)	0.2	△0.3	0.8	△0.5	△0.2	0.8	△0.7
소매판매(전월대비, %)	0.6	0.0	0.6	0.0	△0.1	△0.2	△0.3
실업률(%)	11.5	11.0	10.8	10.8	10.7	10.6	10.5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.2	0.2	0.2	0.1	△0.1	0.1	0.2

□ 중국, 2015년 6.9%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'바오류(保六)'시대 돌입

○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4/4분기 경제성장률은 6.8%를 기록

○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.4%(1~12월 △2.8%) 감소에 그치며 소폭 개선

- 위안화 약세 덕분에 위안화기준 수출은 2.3% 증가하며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

○ 주택가격은 1선 도시(베이징, 상하이, 선전 등) 중심으로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상승

○ 국가통계국 제조업PMI(49.7pt)는 5개월 연속, Caxin 제조업PMI(48.2pt)는 10개월 연속 기준치(50pt)를 하회하는 등 제조업 경기 부진 지속

○ '16년 들어 위안화 및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

분기지표	'14.Q4	'15.Q1	Q2	Q3	Q4
GDP(전년동기대비, %)	7.2	7.0	7.0	6.9	6.8

월지표	'14.12월	'15.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7.9	6.0	6.1	5.7	5.6	6.2	5.9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1.9	10.5	10.8	10.9	11.0	11.2	11.1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15.7	11.2	10.9	10.3	10.2	10.2	10.0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9.7	△8.3	△5.5	△3.7	△6.9	△6.8	△1.4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월대비, %)	△0.4	0.2	0.2	0.2	0.1	0.2	0.2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5	1.6	2.0	1.6	1.3	1.5	1.6

□ 일본, 소비 부진에 이어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마저 감소

○ 산업생산은 증감을 반복하는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,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실질임금 및 소매판매도 감소하는 등 11월 경제지표는 부진

- 정기급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상여금이 대폭 감소(△8.6%)하며 5개월만에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전환

○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엔화약세마저 주춤*해지며 수출도 2개월 연속 감소

* '14.10.30일 추가 양적완화로 1년간 지속되었던 엔화약세 효과가 사라졌으며 경기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위안화 및 신흥국 통화에 비해 오히려 강세로 전환

※ 엔/달러 환율(엔) : 107.91('14.10) → 116.15(11) → 119.38(12) ⇒ 122.51('15.11) → 121.80(12)

※ 엔화의 실질실효환율(2010=100) : 76.99('14.10) → 72.33(11) → 71.53(12) ⇒ 73.91('15.11) → 74.72(12)

분기지표	'14.Q3	Q4	'15.Q1	Q2	Q3
GDP(전기대비, %)	△0.7	0.5	1.1	△0.1	0.3
경상이익(전년동기대비, %)	7.6	11.6	0.4	23.8	9.0
설비투자(전년동기대비, %)	5.5	2.8	7.3	5.6	11.2

월지표	'14.11월	'15.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산업생산(전월대비, %)	△0.6	1.1	△0.8	△1.2	1.1	1.4	△0.9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0.5	1.0	1.8	0.8	△0.1	1.8	△1.1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4.9	9.5	7.6	3.1	0.5	△2.2	△3.3
실질임금(전년동월대비, %)	△3.1	△3.0	0.5	0.1	0.3	0.4	△0.4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 * ( )안은 소비세 인상분 제외 근원물가	2.4 (0.6)	0.4	0.2	0.2	0.0	0.3	0.3

< 중국 주식시장 불안원인과 우려요인 >

□ (현황) '16.1.26일 기준 상하이종합지수가 전년말대비 22.3% 하락*하며 거래일 17일만에 시가총액(상하이+선전) 54조위안中 12.4조위안이 증발

* 상하이종합지수 : 3,539('15.12.31) ⇒ 2,748('16.1.26), 주가상승 이전수준 회귀('14.12월초 수준)

□ (원인) 중국경제 펀더멘탈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및 정부의 미숙한 시장운영이 주식시장의 불안을 가중

○ **(위안화 평가절하)** '16년초 정부의 환율개입으로 해외자금 이탈이 가속화

- 위안화의 SDR* 편입 결정('15.11.30일)이후 중국정부의 환율개입 가능성이 커지며 위안/달러 환율은 이미 상승하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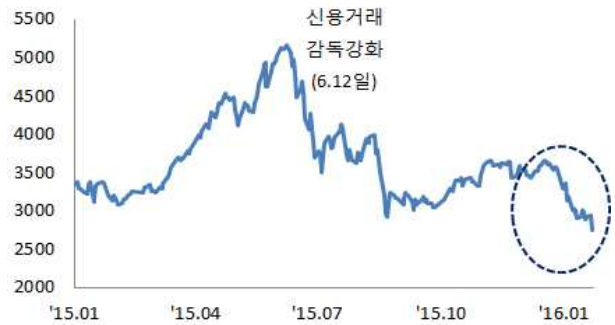
* SDR(Special Drawing Rights)은 IMF회원국이 IMF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

- 거의 전날종가로 고시하던 고시환율을 새해 첫 4일간 세 차례나 전날종가대비 0.1% 이상 절하하여 고시하자, 위안/달러 환율이 급등

위안/달러 환율



상하이종합지수



○ **(운영 미숙)** 대주주 지분매각 금지 해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고, 새로운 서킷브레이커 제도 설계 및 운영도 실패

- 최근 주식시장 수급의 최대 불안요인이었던 대주주 지분매각 금지('15.7.8~'16.1.8일) 해제를 겨우 1일 앞두고서야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등 패닉에 빠진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
- '16년 새롭게 도입한 서킷브레이커*가 주가하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자 시행 나흘만에 폐지

* (1단계) 주가지수 5% 하락 → 15분 정지, (2단계) 주가지수 7% 하락 → 당일 거래정지

□ (우려요인) 중국정부의 대응에도 주가하락에 대한 불안요인이 여전해, 해외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

○ (정부대응) ①대주주 지분매각 제한적 금지(3개월내 지분 1% 이상 매각금지) ②단기 유동성 공급(1월 3주간 역RP 6,950억위안 순공급, 1.26일 4,400억위안 추가 발행) ③중기 유동성 공급(1.19일 4,100억위안 유동성 공급) ④외국은행 위안화예금 지급준비율 마련(시중은행 수준) 등

○ 위안화 약세 우려로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증시 안정화에 역부족 ⇒ **1.26일 상하이종합지수 6.4% 재폭락**

□ 국내, 수출 부진으로 생산과 투자 감소세가 지속

○ 4/4분기 GDP(속보치)는 전기대비 0.6%로 2/4분기(0.3%) 이후 0%대 재진입
- 민간소비(1.5%)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(△6.1%)는 부진
- '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.6%로 '12년 2.3% 이후 최저

○ 11월 생산은 반도체(△9.7%), 통신·방송장비(△20.2%)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2.3% 감소
- 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세가 둔화

○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세로 전환

○ 11월 투자는 설비(△6.0%), 건설기성(△0.8%)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
- 설비투자는 9~10월 운송장비(항공기 등)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(△0.7%)대비 하락폭이 확대

○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어 1.3% 상승(연간 0.7%,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)

○ 12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대출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전월(0.5%)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(0.2%)

○ 12월 수출은 △14.1%, 수입은 △19.2% 감소하여 47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
- 수출은 품목별로는 기저효과에 따른 선박(△33.8%) 감소,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(△28.0%) 감소, 반도체(△17.2%) 부진이 두드러지며, 지역별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(연간 수출증가율 △8.0%)

※ 주요지역별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 : 중국 △16.5, 중동 △15.1, 중남미 △34.9

분기지표	'14.Q4	'15.Q1	Q2	Q3	Q4
GDP(전기대비, %)	0.3	0.8	0.3	1.3	0.6
GDP(전년동기대비, %)	2.7	2.5	2.2	2.7	3.0

월지표		'14.11월	'14.12월	'15.8월	9월	10월	11월	12월
제조업	생산(전월대비, %)	0.5	3.4	0.2	2.2	△1.0	△2.3	
	출하(전월대비, %)	2.4	2.1	△0.5	3.3	△1.3	△2.2	
	재고(전월대비, %)	△1.4	△0.4	0.9	1.6	△2.3	△0.8	
	평균가동률(%)	74.6	76.6	74.1	75.2	73.9	72.7	
서비스업 생산(전월대비, %)		0.2	0.2	0.5	1.1	0.4	0.1	
소매판매(전월대비, %)		2.1	1.5	2.0	0.6	3.2	△1.1	
투자	설비(전월대비, %)	11.4	2.1	△0.9	4.3	△0.7	△6.0	
	건설기성(전월대비, %)	△1.6	0.5	2.6	5.2	△7.3	△0.8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1.0	0.8	0.7	0.6	0.9	1.0	1.3
아파트매매가격(전월대비, %)		0.2	0.2	0.5	0.6	0.4	0.5	0.2
청년층(15~29세)실업률(%)		7.9	9.0	8.0	7.9	7.4	8.1	8.4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△2.7	3.1	△15.2	△8.5	△16.0	△4.9	△14.1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△4.1	△1.0	△18.6	△21.8	△16.6	△17.6	△19.2